

비만 환자 이송 중 중상 입은 구급대원 실직



영국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이 고도비만 환자를 이송하던 중 부상을 입고 결국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9일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동부 브롬리에 사는 말콤 콘란(48·사진)은 지난달, 몸무게가 약 160kg에 달하는 고도비만 환자를 구급차에 옮기는 구조 작업에 합류했다. 당시 고도비만 환자는 심각한 비만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상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160kg의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탈장은 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빠져 나오거나 돌출되는 증상으로, 돌출 부위에 압통이 생기거나 장폐색 증상 또는 혈액 순환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회복하는데,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콘란은 구조작업 중 생긴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았다.

약 한 달 동안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현장에서 주저앉았고, 동료의 도움으로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다. 콘란은 병원에서 탈장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더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몸이 돼 버렸다. 이 일로 그는 자신이 4년 동안 일해왔던 구조센터도 그만둬야 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몸무게가 약 160kg인 누군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그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 일이 좋든 싫든 반드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나 역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내게 남은 건 일주일에 한 번, 28주간 병가수당으로 나오는 94파운드(약 130달러)이 전부” 라고 털어놓았다.

사연이 알려지자 그를 위해 기금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GoFundMe)에 전용 페이지가 열렸으며, 현재까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립된 일가족 살린 물병 속 SOS 쪽지

캘리포니아에 사는 커티스 윌슨(44)은 여자친구 라미레스(34)와 아들 헨트 윌슨(13)과 함께 지난 6월 ‘아버지의 날’ 주간을 맞아 산으로 야영을 떠났다. 그런데 계속 이곳저곳을 돌던 탐험하던 이들 가족은 그러나 4일 만에 외딴 협곡에 고립되고 말았다.

구조 요청도 가로막혔다. 통신 불가 지역이라 휴대전화는 터지지 않았고, 친구들이 여행 사실을 알고 있던 했지만 고립 사실을 알고 수색대가 파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윌슨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번뜩 지나갔다. 윌슨은 물병 하나를 꺼내 겉면에 ‘도와주세요’ (HELP)라는 문구를 긁어 새긴 뒤, 자신들의 위치와 날짜가 적힌 구조 요청 쪽지를 담아 강으로 흘려보냈다. 폭포 위쪽 평평한 지대에 돌맹이들로 ‘SOS’ 메시지도 만들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누군가 제발 자신들의 구조 요청을 봐주기를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몇 시간 후, 이들은 확성기에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윌슨 가족이 흘러보낸 물병이 고립 지점으로



부터 약 7km 떨어진 강 하류에서 등산객에게 발견되었고 이들이 구조 당국에 신고했고 수색대가 파견됐던 것이다.

현지 구조대원 신디 바버는 “강 좁은 곳에서 SOS 쪽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라면서 “자정 무렵이라 이미 많이 어두워진 상태였지만, 헬리콥터 구조대가 선풍 나서주어 무사히 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구조대는 적외선 기술을 활용해 윌슨 가족이 피운 캠프파이어 열을 감지했고 고립 지점에서 일가족 3명을 구출했다. 라미레스는 “지쳐 잠든 사이 머리 위로 구조 헬기가 나타났다.” 라면서 “내일 아침 올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구조대의 외침을 듣고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다.” 고 말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윌슨 가족은 구조 헬기를 타고 안전하게 협곡을 빠져나왔다. 이날 구조 헬기를 조종한 조 킹맨(51)은 “23년간 구조대 일을 했지만 물병에 담긴 쪽지 때문에 구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이라면서 “여러 우연이 겹쳐 기적을 만들었다.” 고 기뻐했다.

8세 유튜버, 공정거래 위반 적발



매달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미국의 8세 유튜버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올해 8세인 라이언 카지(사진)는 자신의 채널 ‘라이언 토이 리뷰’에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2,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전체 유튜버 수의 1위에 올랐다.

최근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독자 2,080만 명을 거느린 카지가 자신의 어린이 구독자들에게 자신을 후원하는 업체의 장난감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광고의 공정성을 감시하

는 단체인 ‘트루스 인 애드버타이징’ (Truth in advertising) 측이 카지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월마트와 같은 브랜드의 유료 후원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카지와 그의 부모가 함께 제작하는 영상의 90%에는 유료 후원을 받은 제품이 등장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한 후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월마트 측은 2017년 과산 수순을 겪은 장난감 유통 체인 ‘토이저러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카지의 채널과 손을 잡고 ‘라이언의 월드’ (Ryan’s World)라는 라인을 론칭, 함께 사업을 벌여왔다.

트루스 인 애드버타이징 측은 동영상에 실어진 광고 수익의 45%를 가져가는 구글도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측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지와 그의 가족은 2017년 법인 회사를 세우고 텍사스에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부를 축적하고 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